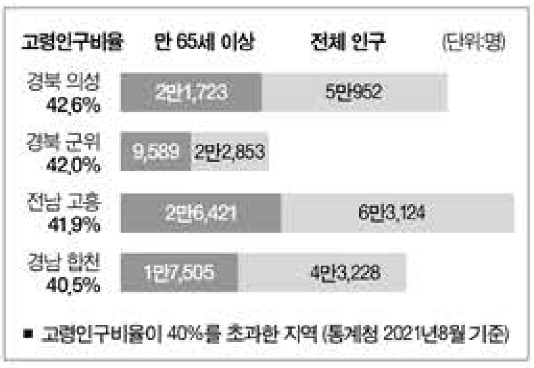
인구 감소 대응 위해 '인구소멸지수' 도입



한국 정부가 지역 인구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인구소멸지수' 를 도입한다.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엔 국고보조 공모사업 우대, 재정특례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30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을 10월 중 지정, 고시한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 내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수의 일정 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광역단체는 5년 단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지방소멸기금도 차등 지원한다. 준비 기관 등을 고려한 내년 지방소멸기금은 7,500억 원이다. 특별법상 재정 특례 혜택도 제공한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에 있는 군 단위 지역 92곳은 모두 젊은층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지난달 기준 경북 의성과 군위, 전남 고흥, 경남 합천 4곳은 지역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시' 단위 가운데서도 경북 김제시는 전체 인구 8만1,347명 가운데 2만6,536명이 만 65세 인구로, 고령인구 비율이 32.6%에 달해 '시' 중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10명 중 6명 "생활비 스스로 마련"

▲ 사진=shuterstock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운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57.7%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마련해 주는 경우는 29.9%, 다른 사람과 본인이 함께 마련하는 경우는 12.4%였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남성은 68.1%, 여성은 49.1%였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82.4%에 달했다.

이처럼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에 태어난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때문이란 분석이다.

통계청 정남수 인구총조사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 며 "공적 연금 제도의 수혜화 금융·실물자산의 증가 또한 영향을 미쳤다." 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65세 이상) 가구가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인 166만 1,000가구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7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다.

작년 사망자 30만 명 돌파 '역대 최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자 수가 30만명을 돌파하며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보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살 사망률은 3년 만에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을 이어갔다.

▲ 서울 성산대교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 사진=shuterstock

지난 28일 '아시아경제' 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조사망률은 593.9명으로, 한 해 전보다 19명(3.3%) 늘어났다. 2009년 497.3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48.6%를 차지하면서 전체 대비 비율은 한 해 전 대비 1.6%포인트(p), 10년 전 대비 15.2%p씩 높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며 "코로나19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0.3% 수준인 만큼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서 지난해 (전체) 사망자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7명을 기록했다. 2019년 26.9명보다 4.4% 줄었다.

자살은 한국인 사망 원인 중 5위였다. 전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이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이 2위~4위를 차지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